



❖ 영적 독서: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마태 19,16-26 ; 루카 18,18-2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 묵상

부자는 누가 보아도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그는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종교적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거쳐야 했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재물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믿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난 그의 모습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결말이 어떠한 지를 보여줍니다.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 앞에서 그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입니다.

부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켜야 할 계명에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신앙을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난'입니다. 그것은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느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의 섭리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난을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서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사랑하는 벗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참 사랑의길'이요, 하느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 신앙의 길'이며, 하느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참 희망의 길'입니다. 이 '가난의 길'이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길에 들어서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것인가,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고 재물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 성체조배
- ❖ 시작성가 (회의실)
- ❖ 시작기도(길잡이 14 쪽)
- ❖ 새로오신분 / 특별 참석자 소개및 환영
- ❖ 행사 토의 / 각 부서 공지 사항
 - 제 17 차 전체울프레야 모임- 10/27 일(오전 10:00-오후 6:00)까지 오클랜드 성당
주소: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 산호세성당 '단체의 날' 행사-10/14(일), 바자회(9 시-오후 2 시반), 홍보 booth(9 시-오후 4 시)
바자회에서는 호박죽판매예정이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 길잡이학교, 제 3 기 일정공지-준비모임은 2/25/2013 각 본당별로 모임 예정
수료식 8/4/2013(SF 성당), 참가신청및 문의-김광용요한, 간사님
 - 팀회합을 위한 팀구성 협의(남성 10 차)
- ❖ 영적 지도: 지도 신부님
- ❖ 마침 기도 (길잡이 15 쪽)
- ❖ 마침 성가
- ❖ 친교 시간

10월 전례. 선교의 수호자 성녀 소화 데레사 동정학자 대축일(10월 1일)

포교사업의 수호자이신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 대축일입니다. 성녀는 1873년부터 1897년까지 24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현재 가톨릭 교회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성인 중의 한 분입니다 가르멜 수녀로서 일생을 마친 그녀의 본래 이름은 마리 프랑소와 데레즈이고, 리지외의 데레사라고도 하며, 흔히 우리는 그녀를 소화 데레사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알랑송에서 시계 기술자인 마르탱과 게랭 사이에서 출생한 성녀 소화 데레사는 자매 가운데 5명이 수녀가 된 가톨릭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5세가 되던 해에 리지외의 가르멜수녀원에 입회하였습니다. 1890년 첫 서원을 하였으며, 결핵으로 고생하던 중 1897년 9월 30일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쓴 자서전 「영혼의 이야기」는 그녀의 정신을 소상히 알려준 명저로서 성녀께 대한 존경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많은 치유와 예언의 기적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1925년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짧은 시일 안에 시성될 만큼 대단하였으며 급속도로 전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1929년에는 실제로 포교사업을 한번도 하지 않았지만 포교사업의 수호자로 선포되었으며 현대의 성녀라고 할 수 있을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성인들처럼 역사에 남을 만한 대업적을 이룩한 것도 아니고 주위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동료수녀들까지도 그녀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평범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았지만, 일약 대성녀가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으면서도 이처럼 현대의 유명한 성녀가 된 것은 누구나 쉽게 본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였고 몸소 실천하였으며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녀가 제시한 천국 가는 방법이란 하느님을 열애하고 많은 영혼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록 사소한 일까지도 정성을 모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 사람의 눈에는 별로 보잘것없는 시시한 것으로 간주되었겠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께는 참으로 위대한 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느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적으로 어린이가 되어야 하겠고 어린이처럼 일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바로 이런 어린이의 길을 걸었으며 어린이처럼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품안이 아니고는 잠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데레사 성녀는 언제나 겸손하고 순박하였으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그분만을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심정을 간직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찮은 일이나 조그마한 회생을 곱게 곱게 꾸며서 죄인의 회개와 만민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지향으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이처럼 비록 작은 것이나마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알뜰히 바쳤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귀한 비단이 가장 작은 누에고치의 실로 짜지듯이 데레사 성녀는 평범한 일상생활로 가장 고귀한 선물을 하느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성녀가 보여준 작은 길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길이며 영신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생활로 일생을 보내며 그런 것으로



성덕을 닦고 공로를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께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큰일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이건 상관 없습니다. 하느님께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였으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실천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가정주부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부엌일이나 가족들의 사소한 뒷바라지를 할 때 속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하찮은 일이지만 하느님께는 더 없는 기쁨을 드리게 되고 하는 일도 재미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것이 가사일이건 직장일이건 교회일이건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에 엄청난 보화를 쌓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녀가 보여준 특징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면서 이를 위하여 일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만민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레사 성녀도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한 나머지 모든 영혼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전교사업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희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분은 일선 선교사들처럼 남에게 직접 교리를 가르치거나 더욱이 전교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로부터 포교사업의 수호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은 것은 그분이 기도와 희생으로 포교사업을 도왔으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하는 피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 축일로 시작되는 시월은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계절이며, 동시에 자연의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천고마비의 좋은 계절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교회는 시월 한 달을 전교의 달로 정하고, 많은 영혼을 천국에 거두어들이므로써 영신적으로도 우리를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를 상기하여 우리도 전교대열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기도와 희생 그리고 다른 뒷바라지로 전교사업을 뒤에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훌륭한 방법이며 효과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접 극동까지 와서 복음을 선포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와, 한번도 남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런 기도와 희생으로 포교사업을 도운 소화데레사, 이 두 성인을 함께 포교사업의 수호자로 선포하고 대축일로 경축하도록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준 성녀 소화 데레사 대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성녀가 보여준 작은 길을 따름으로써 하느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드리고 천국에는 많은 보화를 쌓아두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 울프레아 임원진

- 간 사: 정상준(미카엘) 510-912-1662 /부간사: 노상현(미카엘라) 408-655-9111
- 총 무: 박종태(프란치스코사베리오) 408-315-8924
- 빨랑카부: 기강은(크리스티나) 408-335-9521 /채지연(마리아) 408-483-0804
- 음 악: 최상진(엘리사벳) 408-425-9765
- 교육부장: 최광섭(요한) 408-497-8526 /교육차장: 기현철(베네딕도) 650-759-9776
- 활동부장: 고응봉(안드레아) 408-202-4562 /섭 외 부: 홍인숙(루시아) 408-655-3178